

# 연길시 학교 4개 신설... 의무교육 균형 발전 추동

—5억 원 투자해 중소학교 학생 명액 3,660개 새로 증가



새로 건설된 연길시천지소학교(북산소학교 화성학구)

최근 몇년간 연길시는 시종일관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을 최대의 민생으로 삼으며 인구 류동 추세와 대중의 기대에 초점을 맞춰 학교를 가장 필요한 곳에 건설하고 학생 명액(學位)을 가장 부족한 구역에 증가했으며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교 운영의 질을 향상시켜 여러 민족 아이들이 집안에서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누리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 발전을 추동했다.

지난 3일, 인퉁거리 동측, 천지로 남측에 위치한 연길시천지소학교에 들어서니 새로 건설된 교수청사에서

랑랑한 글소리가 흘러나왔다. 인공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는 소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었고 실내 체육관에는 표준화된 롱구장과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아이들이 덕지체미로에서 전면 발전할 수 있도록 견고한 보장을 마련했다.

“화성 등 새로운 부동산 대상의 입주로 이 구역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자원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에 이 구역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거리 등교와 부족한 학생 명액 때문에 많이 걱정했다.”

연길시천지소학교 대대 보도원 신설선에 의하면 현재 1.19억 원을 투

입해 건설한 천지소학교가 순조롭게 사용에 투입되면서 24개 학급, 1,080개 소학교 학생 명액이 새로 증가되었다. 1학년의 4개 학급은 이미 3월 2일에 개학해 주변 아동의 ‘장거리 등교, 학생 명액 부족’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다.

연길시천지소학교와 천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연길시제 11중학교는 한창 건설중이다. 연길시교육사업발전 중심 사업일군 주중립의 소개에 따르면 학교는 18개의 학급으로 편성되는 데 초중 학생 명액 90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이다. 현재 교수청사와 종합청사의 주체공사를 완수하고 시공일군

들은 공사 진척을 다그쳐 실내장식을 진행, 올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두 학교는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소학교에서 초중까지의 완전한 교육사슬을 구축하고 연길시 하남 서부의 교육자원 수요를 충족시켜 교육 균형을 실현했다.

대중의 수요가 있는 곳에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확장한 생동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연길시 연대거리 서쪽, 원예로 북쪽 구역에 위치한 연길시중환로학교 대상건설현장에서는 시공일군들이 분주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대상은 총투자액이 2.39억 원에 달하는 중점 민생 대상으로 부지면적이 4.3만평방미터, 5층짜리 종합교수청사 2채, 지하주차장 및 실의 운동장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남측의 연길시중환로소학교에는 24개의 학급이 편성되고 소학교 학생 명액 1,08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이며 북측의 연길시제 15중학교에는 12개의 학급이 편성되고 초중 학생 명액 60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이다. 현재 두채의 교수청사 주체건설을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내외부 장식 공사를 추진중, 올 8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된 후 연길시 서부의 교육배치를 일층 최적화하여 량질의 교육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학교는 대중이 기대하는 곳에 세워지고 량질의 교육은 가가호호에 혜택을 준다. 계획대로 사용에 투입된 연길시천지소학교, 곧 준공되는 연길시제 11중학교,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는 연길시중환로학교 등 3개 학교의 총투자액은 5억 원을 초과하고 학생 명액 3,660개가 새로 증가된다. 연길시는 실질적인 민생 투자를 통해 량질 교육의 보장망을 촘촘히 하고 균형적인 교육으로 민생 기반을 다지며 량질 자원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빛나게 함으로써 변경 교육의 고품질 발전의 따뜻한 장을 써 내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활력을 주입하고 있다.

/연변뉴스넷

[학생작문]

## 눈처럼 하얗게 살리라

◎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 초중 2학년 리서진

오늘 어머니와 함께 해룡호(海龙湖)를 발견하면 걸으면서 한쪽의 아름다운 겨울 그림을 감상하였다.

십리포(十里舖)에 머물러 눈에 들어오는 강남풍의 건축물을 보면서 한겨울의 아담하고 아늑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호수가의 나무, 건물의 지붕, 길가의 동물쓰레기통까지 마치 하얀 이불을 뒤집어쓴 것 같았다. 살구나무 같기도 하고 배나무 같기도 한 나무 몇그루가 눈에 들어오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줄기와 가지만 남아있어서 쓸쓸하고 처량해보였다. 그런데 그 앞에 놓인 작은 다리와 지상의 눈이 서로 어울려 오히려 추위를 무릅쓰고 명년 봄에 움트고 꽃을 피울 꿈을 꾸고 있는 이 나무들의 단단함과 견강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 같은 각이한 느낌이 들었다. 보는 각도가 부동함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

조금 더 앞으로 걸노라니 또 방금전에 본 다리보다 조금 더 큰 다리가 나타났다. 다리 위에 올라서서 호수를 내려다보니 온통 새하얀 옷으로 단장해있었는데 어떤 곳은 바람에 눈이 날려가 얼음강판이 그대로 드러난 채 얼터거리고 있었다. 눈과 얼음이 햇빛에 반사되어 한줄기 눈부신 빛을 뿌리는 맑고 투명한 겨울과도 같았다. 햇빛, 구름, 하얀 호수가 한데 어우러져 쌀쌀한 겨울 날씨와 완전히 다른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다. 나는 겨울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되어 멋진 포즈를 취하며 어머니에게 급히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별로 닿지 않은 호수의 눈들은 오묘되지 않아 마치 새하얀 구름송이 같기도 하고 새하

얀 솜털이 같기도 하였다. 새하얀 주단을 풀어놓은 듯한 호수 우를 견노라니 마치 솜이불을 밟는 것 같기도 하고 푹신푹신한 등산복을 밟는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하얀 설장 같은 눈을 한층쯤 쥐어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차가운 눈맛을 느끼며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마치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매일 뛰여놀며 즐기던 동년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아, 새하얀 눈이 나에게 즐겁기만 하던 아름다운 동년시절을 찾아준 것이었다.

발밑에서 나는 ‘빠드득 빠드득’ 발자국 소리, 귀를 스치며 ‘호호’ 웃어대는 ‘까불이’ 바람 소리, 그리고 그 바람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나무가들이 내는 ‘따닥’, ‘따그닥’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한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매일 집, 학교, 학원을 오가며 책더미에 깔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오늘 어머니에게 이끌려 마음의 탕개를 풀고 해룡호를 산책하면서 겨울 경치를 감상하느라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방에 휘 날아가는 것 같았다. 마냥 보는 겨울 경치지만 평소에는 시간에 쫓겨 결눈질할 겨를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였기에 단순히 추위를 느끼며 겨울이 왔음을 실감했던 것 같다. 오늘에야 비로소 은빛 세계를 감상하면서 내 마음도 새하얀 눈처럼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듯한 같은 감동을 받았다. 나도 새하얀 눈 같은 결백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하얗게 살아가야겠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겨울의 풍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유난히 더 아름다웠고 마음이 더 행복한 것 같았다.

/지도교원 윤상남

## AI 의인화 서비스

### 미성년자에 가상 반려 제공하면 안돼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公安部,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규정 방법>(이하 <방법>)을 련합으로 공포했다. 이는 2026년 7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법>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안전과 영예를 훼손하거나 국가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 리용자의 자해나 자살을 부추기거나 이를 미화하는 내용, 언어폭력 등 인격적 존엄과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내용을 생성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리용자에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감정적 의존 및 몰입을 유도하여 실제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특히 이번 <방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강화 조치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상 가족이나 가상 반려 등 이른바 가상적 친밀 관계 서비스를 일절 제공할 수 없다. 나아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기타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방법>은 이러한 내용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안전 평가, 알고리즘 등록, 인공지능 샌드박스 안전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민넷

## 인공지능, 교원자격 시험과 인증 내용에 포함시켜

우리 나라는 ‘인공지능+교육’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가동하여 인공지능을 교원자격 시험과 인증 내용에 포함시켰다.

교육부가 4월 10일 개최한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원의 교수에 조력하는 것을 둘러싸고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수업전, 수업중, 수업후 교육교수 전 과정을 둘러싸고 스마트 교육 시스템의 적용을 강화하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교원을 도와 숙제 관리를 전개하고 스마트 수정, 질의응답, 지도

도를 추진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교실 수업 행위를 분석하고 교원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소학생 인공지능 교육 보급을 다그치고 관련 수업을 충분히 개설하고 잘 개설한다. 인공지능 교육을 지역 수업 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고 각 지역을 지도해 인공지능 수업 지침을 제정하며 각 교육단계 수업 목표, 내용과 수업 시간 요구를 명확히 한다. 인공지능 다학과 수업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수

업후 서비스, 연구 학습 실천 등 고리에 융합시키도록 추진한다.

스마트 시대의 고급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행동계획>은 인공지능이 대학 공공기초과목이 되도록 추진하고 학과 전공 분류에 따라 수업 교재를 편찬하며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지식을 장악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통 학과 전문 인재 양성 방안을 최적화하고 인공지능 교차 융합 수업을 개설하도록 대학교를 지도하며 다학과, 다전공 교육과정 그룹을 풍부히 하여 복합형 교차 인재를 양성한다. 산업구조의 스마트

업 업그레이드에 근거하여 학과 전공 설치를 최적화하고 조절하며 일련의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 형태에 적합한 학과 전공을 신설한다.

이외 <행동계획>에 근거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교육 관리,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교육’의 기초 환경과 발전 생태를 강화하고 최적화한다. 2030년에 이르러 종적으로 관통되고 횡적으로 연결된 인공지능 전 학습단계 교육과 전사회 통시(通識) 교육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인민넷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中华圆梦  
万马奔腾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